

全南大 博物館 所藏品 三例

崔 夢 龍

1974年 全南大博物館에서 購入한 重要な 遺物 中에서 幀畫, 誌石, 長鼓의 三點의 遺物이 있는 데, 學術的인 價値를 갖고 있어 여기에 資料로서 紹介하고자 한다.

(1) 天龍幀畫

이것은 縱 70.5cm, 橫 79.8cm의 絹本着色으로서 下段에는 “康熙四十一年壬午七月日 天龍幀畫安于仙岩寺 証明混益比丘 持殿廊目比丘 畫員思信比丘 若訥比丘 致祥比丘 就性比丘 義祝比丘 供養主宗安比丘 候森比丘 別座寂亂比丘 太工德主若休比丘”의 15行 76字의 墨書銘이 있다.

따라서 이 幀畫의 製作年代가 康熙四十一年(李朝肅宗 28年, 1702年)임을 알 수 있으며 또 이 幀畫(金魚)는 天龍幀畫임을 알 수 있다.

幀畫는 曼荼羅로서 普通 後佛, 地藏觀音, 神將과 十王, 八相, 羅漢, 七星 등이 있는데¹⁾ 여기 幀畫의 경우는 天龍幀畫로서 類例를 찾아보기 힘든 드문 것이라 할 수 있겠다.

天龍은 天龍八部象 혹은 童神八部の 略字인데 ①天 ②龍 ③夜叉 ④乾闥婆 ⑤阿修羅 ⑥迦樓羅 ⑦緊那羅 ⑧摩睺羅加的 八神으로 나누어지고 全部 “佛法護持”와 關聯이 있는 것이다.²⁾

그런데 幀畫에서 天龍의 位置는 普通釋迦八相變中 誕生圖와 關係가 있는 것으로 여기의 境遇 獨立幀畫로서 左右에 脇侍佛 모양 두 神을 거느리고 있는 것이 特徵이다.

(2) 靑磁白堆菊花唐草文長鼓

이것은 博物館所藏品 No. 2442號로서, 全南 靈岩郡內의 一高麗古墳에서 出土되었다고 傳해지는데, 古墳의 構造, 伴出遺物에 關해서는 確實치 않다.

長鼓(杖鼓)는 長 45.7cm. 筒徑 21cm인데 左右에 가죽을 달아 때리던 筒의 일부가 破損되었지만, 그 形態는 復元할 수 있을 程度의 良好한 狀態이다.

器表面을 보면 唐草와 菊花文을 左右 對稱시키고 있으며, 文樣은 白土를 발라 돌보이게 하는 堆花文 形式을 使用하고 있다.

長鼓는 打樂器의 一種으로 반주에 널리 쓰이는 代表的인 樂器인데, 高麗時代의 것으로는 現在 管見으로 지난 번 二千年展에 出品된 國立博物館所藏의 “靑磁唐草文長鼓³⁾와 여기에 紹介되는 것의 二例 밖에 없는 것 같다.

따라서 高麗磁器中 種類가 드문 例일뿐 아니라 音樂史에 있어서도 裨益을 수 없는 重要的 資料가 되겠다.

* 1) 丙庸海 “人間文化財” 서울 語文閣 1969. P. 311 및 幀畫에 對한 仔細한 研究로는 金玲珠의 “李朝佛畫의 研究”(古文化. 8.9.10輯, 1970. 5-1972)가 있으며, 氏는 幀畫를 ①孟蘭盆經變相 ②華嚴經變相 ③釋迦八相變 ④三藏幀畫 ⑤帝釋·神衆幀畫의 다섯 가지로 나누고 있다.

2) 中村元 監修 「新·佛教辭典」日本 誠信書房 1962. P. 423

3) 美術資料 16號 (國立博物館 1973. 12) P. 36의 261番



寫眞 1. 康熙 41年 銘天竜 幀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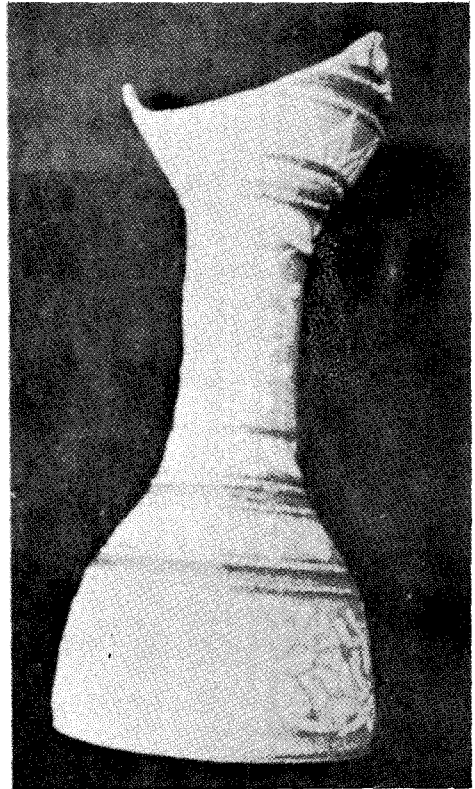
(3) 朴康壽誌石

이誌石은 朴康壽(初名은 朴康用)의 墓誌銘으로, 材料는 粘板岩製, 크기는 가로 68cm 세로 30cm 두께 2cm의 長方形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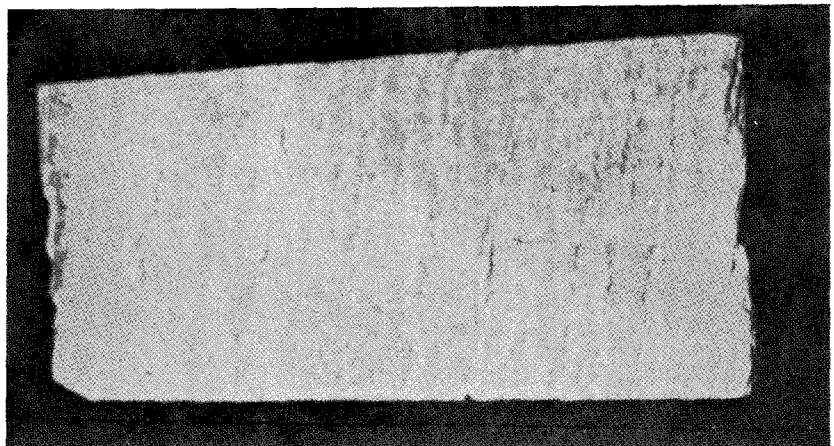
銘文은 前面에 諧字体로 22行 329字가 陰刻되어 있으나 現在 350字만 判讀할 수 있다.

銘文에 依하면 이誌石이 慶南咸陽方面에서 出土된 것이 確實하며, 또 墓誌銘의 主人公이 70才에 監門衛大將軍을 除拜받아 享年 86才, 高麗神宗 3年(西紀 1200年)에 세상을 떠난 朴康壽(1115-1200)로서, 이 墓誌銘의 製作年代도 1200年으로 推定된다.⁴⁾

金石文의 出土가 드문 요즘은 이와 같이 製作年代가 確實한 墓誌銘의 出土는 앞으로 判讀에 따라 高麗社會를 研究하는데 도움을 주리라 믿는다.



寫眞 2. 青磁白磁 菊花 唐草文 長鼓



寫眞 3. 朴康壽誌石

* 4) 閔賢九 “朴康壽墓誌銘의 檢計” - 高麗 金石文資料의 新例 - 歷史學研究(全南大史學科) 5輯 1974. 8. P. 65-73